

## 중학생의 과시소비성향과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함 현 정\*(공산중학교 정교사)

유 두 련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전공 교수)

박 영 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전공 강사)

청소년기는 바람직한 소비자 사회화에 결정적 시기이며 이 시기의 소비 생활 습관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의 과시소비성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중학생의 과시소비성향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중학생의 과시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과시소비성향 분석 결과에 따른 소비자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실행 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PC<sup>+</sup> 10.0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T-test와 ANOVA,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에서 밝혀진 중학생의 과시소비성향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 성향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용돈 액수가 많을수록, 대중매체의 영향, 친구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 소비자 교육의 정도가 낮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행동 제어는 월평균 용돈 액수가 많을수록, 대중매체 영향, 친구 영향이 클수록 구매행동 제어가 낮게 나타났으며 가정환경 영향과 학교 소비자 교육의 정도가 높은 집단은 구매행동 제어가 높게 나타났다.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과시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시소비성향은 구매행동 제어 변인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구매행동 제어가 낮은 집단이 과시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친구 영향이 클수록, 대중매체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월평균 용돈 액수가 많을수록, 모 학력이 전문대졸·대학중퇴일 때 과시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구매행동 제어와 학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행동 제어의 영향을 적게 받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과시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46.2%이었다. 셋째, 학교 소비자 교육이 중학생의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인 소비자교육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영역, 광고 바로 알고 활용하기 영역, 상품 고르기 영역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체험 활동을 통하여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통계자료, 영상자료, 인터넷 자료,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사, 분석, 토의 및 발표 등의 참여학습형태의 청소년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실행 안을 제시하였다.